

# 유벤투스 상대할 '팀K리그 올스타' 팬들이 직접 뽑는다

오는 26일 서울서 경기...감독은 전북 현대 모라이스 확정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명문 유벤투스를 상대할 K리그 올스타를 팬들이 직접 뽑는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팀 K리그 유벤투스의 경기에 나설 선수단 구성 방식을 팬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고 2일 전했다. 선수단은 필드플레이어 18명, 골키퍼 2명으로 총 20명이다. 선발로

나설 베스트11은 팬 투표로 선정된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별도의 투표 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K리그 공식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링크 등이다. 베스트11 투표 후보군은 각 클럽이 제출한 추천 선수들로 구성된다. K리그(1부리그) 12개 클럽들이 소

속 선수 베스트11(22세 이하 선수 1명 포함) 명단을 연맹에 제출했다. 총 132명의 후보로 채워졌다. 후보군은 4일에 공개된다. 투표자 1인은 4-3-3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11명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같은 클럽 소속 선수는 최대 3명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11일에 중간 투표현황, 16일에 최종 투표결과를 발표한다. 대기 선수 9명은 연맹 경기위원회가 클럽별 배분, 리그 기록, 포지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팀 K리그를 이끌 감독은 지난해 K리그 우승팀 전북 현대의 조제 모라이스 감독으로 확정됐다. 코칭스태프는 모라이스 감독 외 K리그 감독 중 2명 내지 3명으로 연맹 경기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수단 소집은 경기 전날인 25일이다. 팀 K리그는 소집 후 팬 사인회, 공식 기자회견과 훈련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유벤투스전에 나선다. 뉴시스

## “류현진, 이렇게 잘할 줄이야” 美 예측시스템 오류 인정

ZIPS, 시즌 전 류현진에 비판적 예상

올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32·LA 다저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물음표가 가득했다. 특히 예측 시스템이 내놓은 예상 성적은 냉혹할 정도였다. 류현진의 부상 이력 탓에 규정 이닝을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예상 평균자책점도 3점대였다. 하지만 류현진은 예측 시스템의 예상을 모두 뒤엎었다. 전반기에 1경기 더 등판할 예정인 류현진은 벌써 16경기에 선발 등판해 103이닝을 소화했다. 9승 2패 평균자책점 1.83을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류현진은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됐고, 내셔널리그 올스타 선발 투수로 낙점되는 기쁨도 누렸다

예상을 뛰어넘는 류현진의 활약에 야구 예측 시스템 ZIPS를 만든 야구 통계학자 댄 짐보스키는 “너무 비판적으로 예상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류현진을 꼽으며 ‘예측 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했다. 짐보스키는 3일(한국시간) ‘예측이 빛나간 투수’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면서 시즌 전 예측 시스템을 통한 예상 성적과 비교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투수와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둔 투수를 거론했다. 류현진은 예상을 뒤엎는 활약을 펼친 투수로 꼽혔다. 짐보스키는 “올해 류현진의 성적을 보면 얼마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 그의 부상 경력 때문에 예측 시스템을 통한 예상 성적에 평균치 이상으로 변동성



을 갖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올해 무척 건강한 류현진을 보고 있다. 과거에 이렇게 좋은 투구를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벌써 개인 한 시즌 최고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의 4분의 3을 채웠다. 또 전반기에 벌써 7개만 내렸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ZIPS는 류현진이 88이닝을 던지며 6승 5패 평균자책점 3.8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예측 시스템인 스티머는 9승 12패 112.9이닝 평균자책점 3.66을 예상 성적으로 내놨다.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D-8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 도시 광주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담겨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주목해야 할 수영스타 등을 소개한다.

## 세계 수영스타 총출동 ‘수중 최강자는?’

17일간 193개국 선수 2995명 출전  
금메달 76개 놓고 치열한 각축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수영스타’들이 광주에 총출동할 예정이다. 오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193개국 선수 2995명이 출전해 금메달 76개를 놓고 벌일 별들의 전쟁에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영 = 금메달 42개가 걸려 있는 경영은 21일부터 28일까지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42개 세부 종목에서 20여 명의 ‘수중 스피드 건’들이 자웅을 겨룬다. 우선 2017년 부다페스트 7관왕인 미국의 카렐 드레셀(22)이 부동의 최강자다. 카렐 드레셀은 부다페스트에서 개인 자유형 50m·100m·200m, 접영 400m, 팀 계영 400m·혼계영 400m, 혼성계영 400m·혼성 혼계영 400m를 석권했다.

◇오픈워터 = ‘물 속 마린’인 오픈워터 경기는 금메달 7개를 놓고 강철체력을 보유한 수영스타들이 출몰한다. 13일부터 19일까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서 개최하며 5km, 10km, 25km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프랑스 마르크 앙투안 올리비에(23)는 부다페스트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최정상에 올랐다. 네덜란드 페리 비어트만(27)도 부다페스트와 리우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다이빙 = 금메달 13개가 걸린 다이빙 종목은 12일부터 20일까지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치러지며 중국이 최강자다. 스프링보드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등 13개 세부종목이 치러진다. 부다페스트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딴 씨에 씨이(23)와 차오 위안(24), 천 아이신(23)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국내 선수로는 우하림(21)이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우하림은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다이빙 역사상 최초로 결선에 진출했다. 다이빙 여자선수들은 중국과 북한이 금메달을 나눠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부다페스트대회 2관왕인 스 탱마오(27)와 런 첸(18), 금메달 1개·은메달 1개를 목에 건 쓰 아레(20)가 열전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 북한의 출전이 확실하지 않지만 부다페스트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차지한 김미라(18), 은메달 1개를 딴 김국향(20)도 언제든지 금메달을 거머쥌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다이빙 = 금메달 2개가 걸린 하이다이빙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최고 흥행 종목으로 꼽힌다. 21일부터 24일까지 조선대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광주도산과 무등산을 배경으로 아찔한 공중요기를 선보인다. 개최 도시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남자 27m, 여자 20m 높이의 플랫폼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린다. 부다페스트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스티븐 로부(34), 2017년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 금메달리스트 영국의 게리 헛트(35)가 광주 대회에 출전한다. 여자선수 중에서는 부다페스트 후주 금메달리스트 리아나 이프랜드(27)와 은메달을 딴 멕시코의 아드리야나 히메네즈(34)가 연기를 선보인다.

◇아티스틱수영 = 물 속의 발레를 선보이는 아티스틱수영은 금메달 10개를 놓고 12일부터 20일까지 영주종합체육관에서 개인별 팀별 예술성을 겨룬다. 부다페스트에서 솔로와 듀엣 부문의 금메달 4개를 거머쥔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폴레스나첸코(25)가 독보적인 실력을 선보였다. 금메달 3개를 딴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파츠케비치(30)도 우수한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아티스틱수영 강국이다. 지난 17년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총 14번 메달을 수상했고 금메달은 2001년 여자 듀엣과 2003년 여자 자유종목에서 나왔다.

◇수구 = 수영 종목 중 유일한 구기종목인 수구는 남·여 각각 금메달 1개를 놓고 국가대항전이 치러진다. 14일부터 27일까지 남부대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조 추첨 결과 남자 팀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와 함께 A조에 편성됐으며, 여자 팀은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와 함께 B조에 속해있다.

◇수구 = 수영 종목 중 유일한 구기종목인 수구는 남·여 각각 금메달 1개를 놓고 국가대항전이 치러진다. 14일부터 27일까지 남부대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조 추첨 결과 남자 팀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와 함께 A조에 편성됐으며, 여자 팀은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와 함께 B조에 속해있다.

◇수구 = 수영 종목 중 유일한 구기종목인 수구는 남·여 각각 금메달 1개를 놓고 국가대항전이 치러진다. 14일부터 27일까지 남부대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조 추첨 결과 남자 팀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와 함께 A조에 편성됐으며, 여자 팀은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와 함께 B조에 속해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륵,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